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과 유가증권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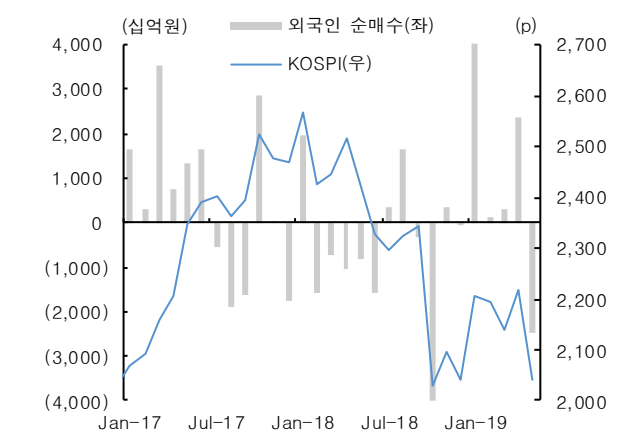
5월 Sell in May를 주도한 외국인 투자자 중 미국인이 가장 높은 비중
여전히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국적별 자금 성격은 상이
최근 들어 단기성 성격 가진 국적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우려할 부분

5월 Sell in May를 주도한 외국인 투자자의 성격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30%대지만, 코스피 월별 수익률과 외국인 투자자 간 상관관계는 0.6~0.8 사이를 기록한 만큼 한국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5월 외국인 증권투자동향에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이 관찰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2,560억원 순매수했으나 유럽(1.25조원), 미국(0.9조원)계 투자자들은 강한 순매도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2,750억원), 영국(1,130억원) 등은 순매수세를 보였으나, 아일랜드(5,640억원), 룩셈부르크(3,570억원)에서는 한국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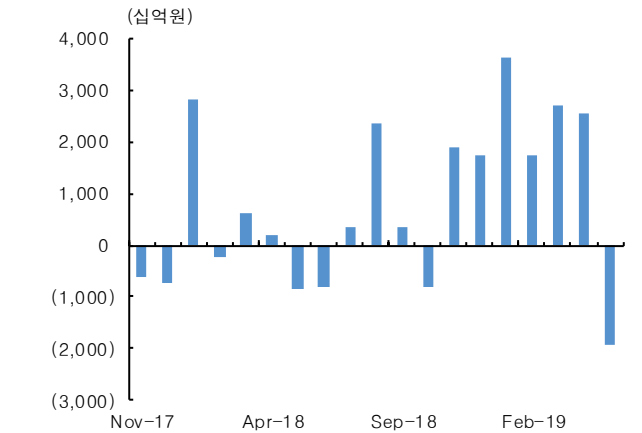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미국으로 그 규모는 5월 31일 기준 외국인 투자자 전체의 42.7%에 달하는 227.1조원에 달한다. 이어 유럽 156.7조원, 아시아 63.6조원, 중동 17.9조원 순으로 한국 증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가장 한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두 지역에서 가장 강한 순매도세가 나타난 것이다.

[그림 1] 코스피 월별 외국인 순매수 동향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외국인의 코스피 프로그램 비차익거래 매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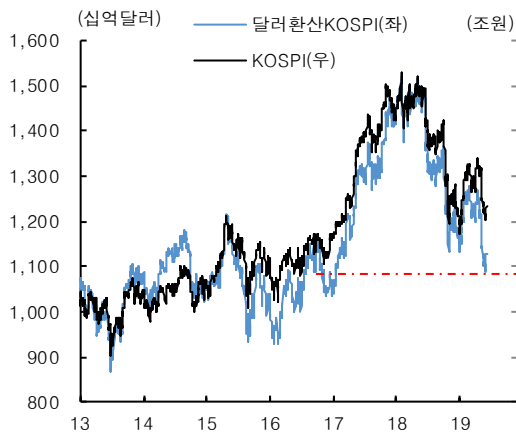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국적별 외국인 투자자 동향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별 자금의 성향이 다른 경향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계 자금의 경우 장기투자 성향을 보인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집계하는 순매수 동향 자료를 보면 미국계 자금은 246개월 중 147개월 동안 한국 주식을 순매수했다. 반면 영국계 자금은 단기적 성향이 강한 헤지펀드계 자금들의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인데도 영국계 자금의 거래비중이 1.5배 이상 높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우려되는 것은 코스피 수익률과 미국계 자금 간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영국이나 케이먼제도 등 (준)조세회피 지역 자금과 상관관계가 올해 들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출입 빈도가 높은 자금의 흐름에 코스피의 수익률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순매수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미국계 자금 유입이 필수인 것이다.

[그림 3] 달러환산 코스피와 코스피 시가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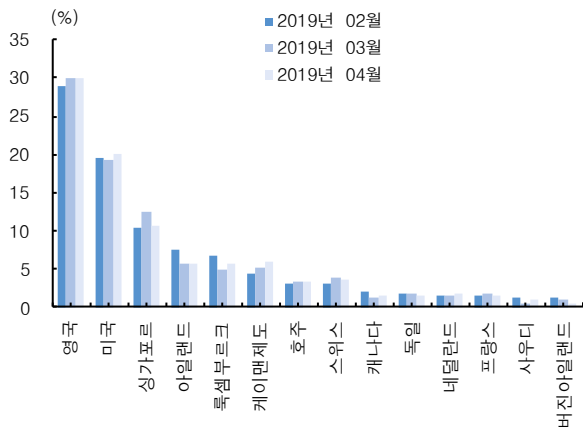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달러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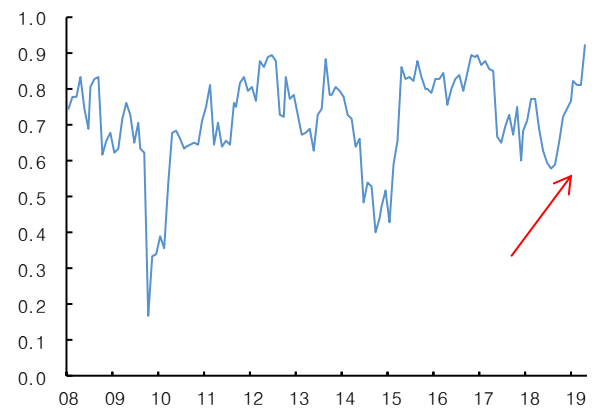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유가증권 시장 주요 국적별 외국인 거래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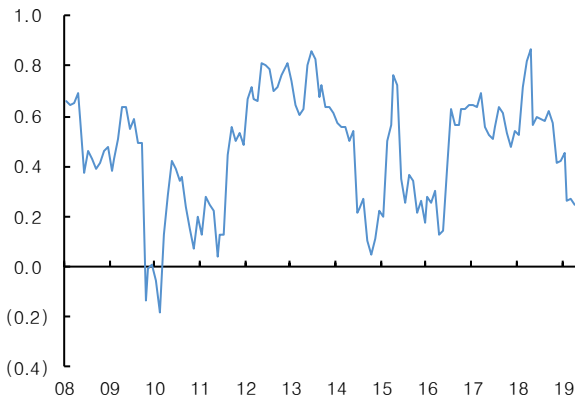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코스피와 외국인 순매수 상관관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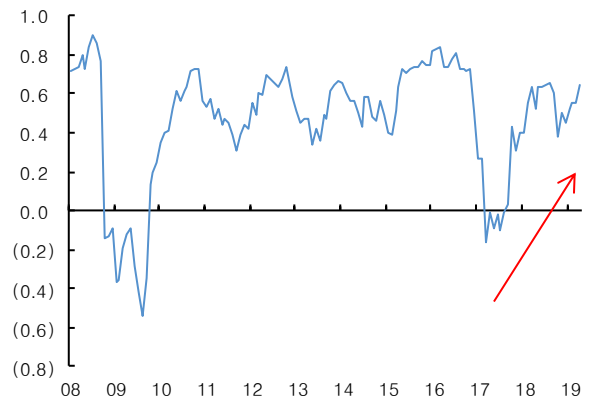
주: 2019년 4월 30일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코스피와 외국인 순매수 상관관계: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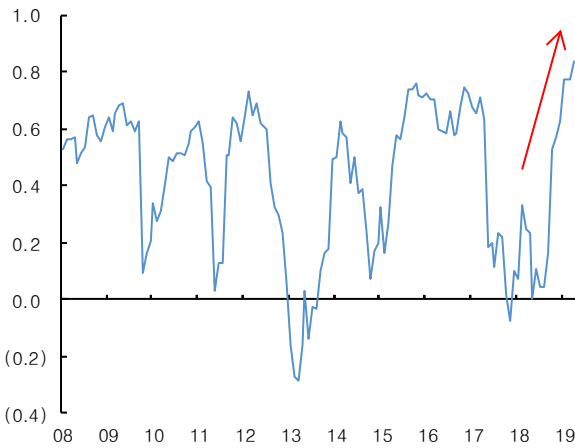
주: 2019년 4월 30일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코스피와 외국인 순매수 상관관계: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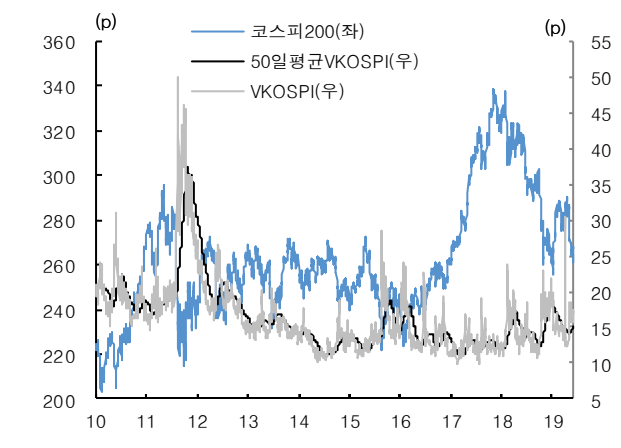
주: 2019년 4월 30일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코스피와 외국인 순매수 상관관계: 케이먼제도



주: 2019년 4월 30일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코스피200과 변동성지수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서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중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